

“10년의 결실, 세계로 뛰는 K-종자” 2026 국제종자박람회 개막

- 김정욱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 「2026 국제종자박람회」 개막식 참석·격려
- 10주년 맞이한 국내 유일 종자산업 전문 박람회, 디지털육종 및 수출 확대 지원 등 종자산업 경쟁력 강화 지속 지원 의지 표명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10월 21일(수),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민간육종연구단지(종자산업진흥센터)에서 개최된 「2026 국제종자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하여 종자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을 살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국제종자박람회는 농식품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국내 유일의 종자 전문 산업박람회다. ‘오늘의 씨앗, 내일을 키우다(Seed Today, Shape Tomorrow)’를 슬로건으로 개최된 이번 박람회는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조명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113개 기업·기관이 참여해 45작물·461개 우수 품종과 첨단 육종 기술 등을 선보였다.

이날 개막식과 현장 시찰에 참석한 김정욱 실장은 “기후변화와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점에서 종자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원”이라며, “지난 10년간 K-종자산업의 성장을 이끌어온 종자업계와 연구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종자산업을 미래 첨단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AI 기반 디지털육종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며, “이번 박람회가 우리 우수 품종의 내수 기반을 공고히 하고 세계 시장으로 뻗어 나가는 도약의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2026 국제종자박람회 개요

담당 부서	농산업혁신정책관 첨단기자재종자과	책임자	과 장	최민지	(044-201-1891)
		담당자	사무관	정인화	(044-201-2481)

- 명 칭: 2026 국제종자박람회(KOREA SEED EXPO 2026)
- 주 제: 오늘의 씨앗, 내일을 키우다(Seed Today, Shape Tomorrow)
- 기 간: 2026. 10. 21.(수) ~ 10. 23.(금), 3일간 * 운영시간: 10시~17시
- 장 소: 종자산업진흥센터·민간육종연구단지(전북 김제시)
- 주 최: 농림축산식품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주 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후 원: 농촌진흥청, 국립종자원, (사)한국종자협회, KOTRA
- 참가기업: 113개사(종자 35, 전후방 56, 기관·단체 22)
- 전시품목: 국내 육성품종(식량, 채소, 화훼 등), 농기자재, 육종기술 등

전시·프로그램	학술행사	일반인 체험프로그램
■ 실내 전시관 - 종자·전후방기업 및 유관기관 홍보부스 - 10주년 주제관, 기획전시 등 ■ 야외 전시포 및 온실 - 내수 및 수출용 육성품종(461품종) - 자율주행 농기계 전시·시연	■ 유전자교정기술과 종자산업 세미나(10.21.) ■ 디지털 표현체 영상분석 기술 워크숍(10.22.) ■ 채소 육종소재 및 육종기술 개발성과 설명회(10.22.) ■ 2026 한국고추연구회 정기 심포지엄(10.22.)	■ 고구마 수확체험 ■ 종자산업 퀴즈쇼 ■ 선재스님 쿠키클래스 ■ 치유농업 체험 - 스트레스 지수 측정 - 식물치유(씨앗고누놀이, 허브비누 만들기 등) - 동물치유(반려동물, 가축 등 교감활동)